

SUMMARY

Article at a Glance

국가 간 역학 관계 중 대부분은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지리가 역사를 설명한다.

Q. 큰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이 조만하게 섬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티베트 문제에 목숨거는 중국
- 티베트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도가 거침없이 중국의 심장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
- 티베트는 중국의 급수탑
- 중국은 티베트가 지정학적 안보 문제

Q. 미국과 서유럽이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 미국은 기후와 지리의 축복을 듬뿍 받고 세계 최강국이 됨
- 대서양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까지 통합을 이루면서 침범하기 어려운 지리적 위치 확보
- 1803 프랑스로부터 루애지나 지역 구매, 1819년 대륙횡단조약 맺음, 1819년 플로리다 포함 그 외 지역 미국에 넘김, 1867년 알래스카 구매, 1889년 필리핀 등에 대한 지배권 획득
- 서유럽에는 사막이 없으며, 하천들은 길고 평坦함, 자연재해의 피해를 덜 받음
- 서유럽이 남유럽보다 부유한 이유는 교역이 수월하고, 농업이 적합한 지역

Q. 유럽에서도 스페인과 그리스가 못사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 스페인의 연안 평야는 토질이 나쁘고 규모도 적음, 하천의 길이가 짧아 내륙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
- 또한 스페인의 메세타 센트럴은 내륙 시장과의 연결을 막았으며, 피레네 산맥이 서유럽과의 연결을 막음
- 그리스는 해안은 주로 가파른 벼랑이어서 농사지기 평야가 별로 없음
- 또한 그리스는 내륙은 가파르고 하천들도 수송에 부적합하며, 폭이 넓고 토양이 비옥한 골짜기도 드물
- 그리스의 바다 건너편에 ‘거인’ 터키가 있음

Q. 아프리카와 남미가 못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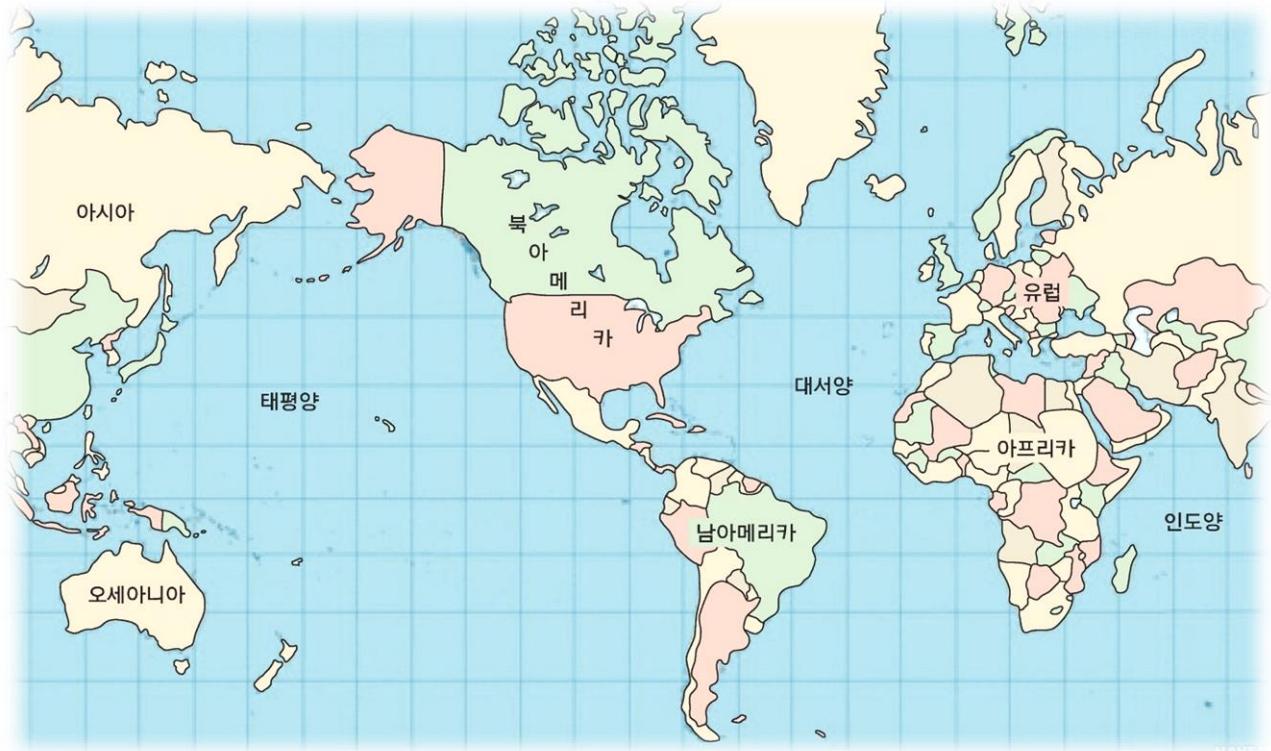
- 아프리카 대륙은 대개 고지대에서 강이 가파르게 꺾여 내려와 배를 띄우기가 쉽지 않음
- 아프리카는 유럽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적 구도의 피해자
- 국경선은 유럽인이 그려 놓은 그대로이어서, 아프리카의 인구학적 현실과 맞지 않음
-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산악지대와 빽빽한 정글이 내륙을 차지하여 지리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음
- 그리하여 라틴아메리카는 수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고 모기와 질병에 시달림

Q. 한국은 왜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되었나?

- 한국은 다른 나라나 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오면 걸림돌이 되는 천연장벽은 없음
- 이런 배경에 몽골이 한반도를 들어왔다 나갔고 이어 명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도 수차례 침입
- 한국은 여러 교역로와 단절되기 희망했으나, 20세기 일본이 들어와서 나라를 통째로 합병함

REFERENCE

세계지도



지리의 힘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팀 마샬 저, 2016

“지리는 언제나 운명들을 가두었다. 그 운명은 한 국가를 규정하거나 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운명일 수도 있다.”

“21세기가 지나는 이때까지 우리 역사를 결정 짓는 데 참견했던 지리적 특성들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도 상당부분 개입할 것이다.”

“물론 지리가 모든 사건의 방향을 지시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지도자들도 역사의 밀고 당김의 일부다. 하지만 그들 또한 지리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인간이 지리라는 족쇄를 부단히 부수어 가면서 우주까지 진출해 가는 한 우주 공간에서의 정치 투쟁도 불가피하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말이다.”

ISSUE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1. 기사에서는 ‘지리가 역사를 설명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기사의 내용에 동의 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말해봅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도 같이 논해봅시다.

(기사에 대한 비판 혹은 첨언 & 자신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

역사관 [a view of the history]

자연에 관해 여러 가지 자연관(목적론적, 기계론적, 변증법적 등)이 있듯이, 인간 사회의 역사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다. 이것은 역사의 기준적인 구조, 동력, 법칙에 관한 견해이며, 크게 나누면,

- ① 어떤 관념적인 것(신의 섭리, 자유나 인간성의 이념, 민족정신, 개인의 욕망이나 관심)을 중심에 두는 사적 관념론,
- ② 자연적인 제 조건(기후, 풍토, 자질 등)을 강조하는 지리적 유물론.
- ③ 인간의 물질적 생산을 토대로 하는 사적 유물론(유물사관)으로 구분된다.

아우구스티누스, 볼테르, 흄, 칸트, 헤겔, 칼라일 등은 ①보댕, 몽테스큐 등은 ②에 속하고, 마르크스주의는 ③을 대표한다.

그러나 ②의 지리적 유물론은, 단순히 항구적인 자연 조건만을 가지고는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역시 ①의 견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인간의 역사의 어느 측면을 중시하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적 관념론은 정신사 및 문화사 또는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 면에 속하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며, 이에 대해 사적 유물론은 경제사 및 계급 투쟁사에 기초를 둔다. 무릇 역사가 개개의 사실의 우발적인 병렬과 짐함이 아닌 한, 역사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의 주요한 추진력은 무엇인가, 그의 발전법칙은 무엇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관이 없으면, 구체적인 역사 기술도 그 방법과 원리를 결여하는 것이다.

또 각각의 역사관은 미래를 향해 현재의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방향과 원동력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실천적인 의의(보수적, 진보적, 전쟁 긍정적, 전쟁 부정적 등)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

역사관의 종류

실증사관: 과거의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만을 역사로 인식하는 사관

식민사관: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사관

민족사관: 식민사학에 대항하여 한(韓)민족의 우수성과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는 사관

유물사관: 사회의 현상의 성립·연관·발전 방법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으로 물질생산이 역사를 바꾼다는 사관

순환론적 사관: 역사적 규칙성 또는 법칙성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하나하나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기초에 있는 인간성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관

문명사관: 인류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다가 절정기를 맞고, 결국 쇠퇴하게 된다는 사관. 세계 2차 대전 후 낙관적이었던 생각을 바꾸면서 나타난 사관

역사주의사관: 모든 사상(事象)을 역사적 생성과정으로 보고 그 가치 및 진리도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사관

우연사관: 역사는 우연히 벌어진 어떤 사건에 의해 달라진다는 사관이다. 이 사관에서는, 역사를 파악하는 일반적인 입장으로서,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을 초래한 필연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 시간적인 인과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역사의 일반적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의 우연성"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영웅주의 사관: 우연사관과 관련있는 개념으로 역사는 우연히 등장한 영웅이 바꾼다는 사관

- 위키백과 -

[경영학을 바라보는 관점]

2. 많은 학문에서 개인, 조직, 집단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지, ‘내부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경영학에 적용을 하여 봅시다. 경영학에서 대립하고 있는 두 관점,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는 ‘조직생태학’과 조직이 환경을 학습한다는 ‘조직학습론’에 대해서 논하자면,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 더 가까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의 경영현상을 설명해봅시다.

조직생태학(Population Ecology)

환경이 조직을 선택(selection)한다는 이론이다. 성공하는 기업의 성공은 기업 내부의 전략적 행동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외부적인 환경적 조건에 적합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의미로, 실패한 기업도 전략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조직이 특징적으로 가지는 목표와 기술 또한 환경적으로 결정된다.

조직학습론(Organizational Learning)

조직이 환경을 학습하고 적응(Adaptation)한다는 이론이다.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고 적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영학에서 조직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을 인지하고 어떻게 자신의 전략을 유지하며, 변화하고, 폐기해나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